

아이티의 보두교와 정치 — 아리스티드를 중심으로

심재중

아이티 독립 200주년이 되는 해인 2004년 2월 28일에 아이티의 대통령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는 대통령직에서 쫓겨나 해외 망명길에 올랐다. 그 직전까지도 수도 포르 토 프랑스의 거리에는 ‘예수, 투생 루베르튀르, 아리스티드: 아이티 민중의 절대 신앙’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들이 나부꼈다. 플래카드 문구의 제일 앞에 나오는 예수의 존재가 말해 주듯이, 오래 전부터 아이티의 정치 역학은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아리스티드는 해방 신학 계열의 가톨릭교회 신부 출신 대통령이였다. 그렇지만 아리스티드는 2003년에 토착 민중 신앙인 보두교(속칭 부두교)를 아이티의 공식 종교로 인정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또한 아이티 독립의 영웅인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는 민중의 상상력 속에서 보두 신앙의 최고 정령인 파파 레그바(Papa Legba)와 동일시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이렇듯 아이티의 현실 속에서 종교와 정치는 참으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역학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콜럼버스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된 그 관계의 긴 여정을 간략하게나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칸달과 투생 루베르튀르

‘아이티’라는 이름은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스파놀라 섬에

살았던 아라와카 인디언의 말로 ‘산이 많은 땅’을 의미했다. 1804년 1월 1일 세계 최초의 흑인 독립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섬의 원래 이름인 아이티를 국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697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식민지 시절, 아이티는 생도맹그(Saint Domingue)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생도맹그는 ‘카리브의 흑진주’라는 별명이 말해 주듯이 카리브 지역의 가장 번성한 식민지였다. 프랑스 대혁명 직전의 생도맹그는 프랑스 대외 무역의 1/3을 차지했고, 아메리카에서 프랑스가 얻는 수익의 70%를 산출했다. 한 해 평균 22만 톤 규모의 배 1,500척이 설탕, 커피, 인디고, 가죽을 가득 싣고 생도맹그를 떠나 프랑스로 향했다. 특히 사탕수수 농장의 엄청난 노동력 수요 때문에 생도맹그는 노예들의 집결지가 되었다. 1785년에서 1789년 사이에 15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수입하였고, 1789년 한 해에만도 55,000명을 수입하였다. 물론 그 중 대다수는 제당 공장이 밀집해 있는 북부로 보내졌다.

생도맹그의 흑인 노예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가혹한 처우 때문에 평균 10년 이상을 연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정령 숭배 의식, 소위 보두 의식이 그들에게는 정신적인 안식처 역할을 해 주었다. 흑인 노예들을 따라 아프리카의 신들도 아메리카로 이주해 온 셈인데, 거기에 가톨릭적인 요소가 접목되어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보두교이다. 예나 지금이나 보두 의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북을 중심으로 한 음악과 춤, 그리고 신들림의 경험이었다. 또한 보두교 사제는¹⁾ 자연의 이법과 질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치료사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보두 신앙에 기초한 영적·실천적 능력을 갖춘 노예들이 점차 흑인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노예들이 밤중에 모여 춤추는 의식을 금지’한 프랑스 왕의 칙령(1704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두교는 노예제의 억압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 탈주 노예를²⁾ 중심으로 1791년에 시작된 흑인노예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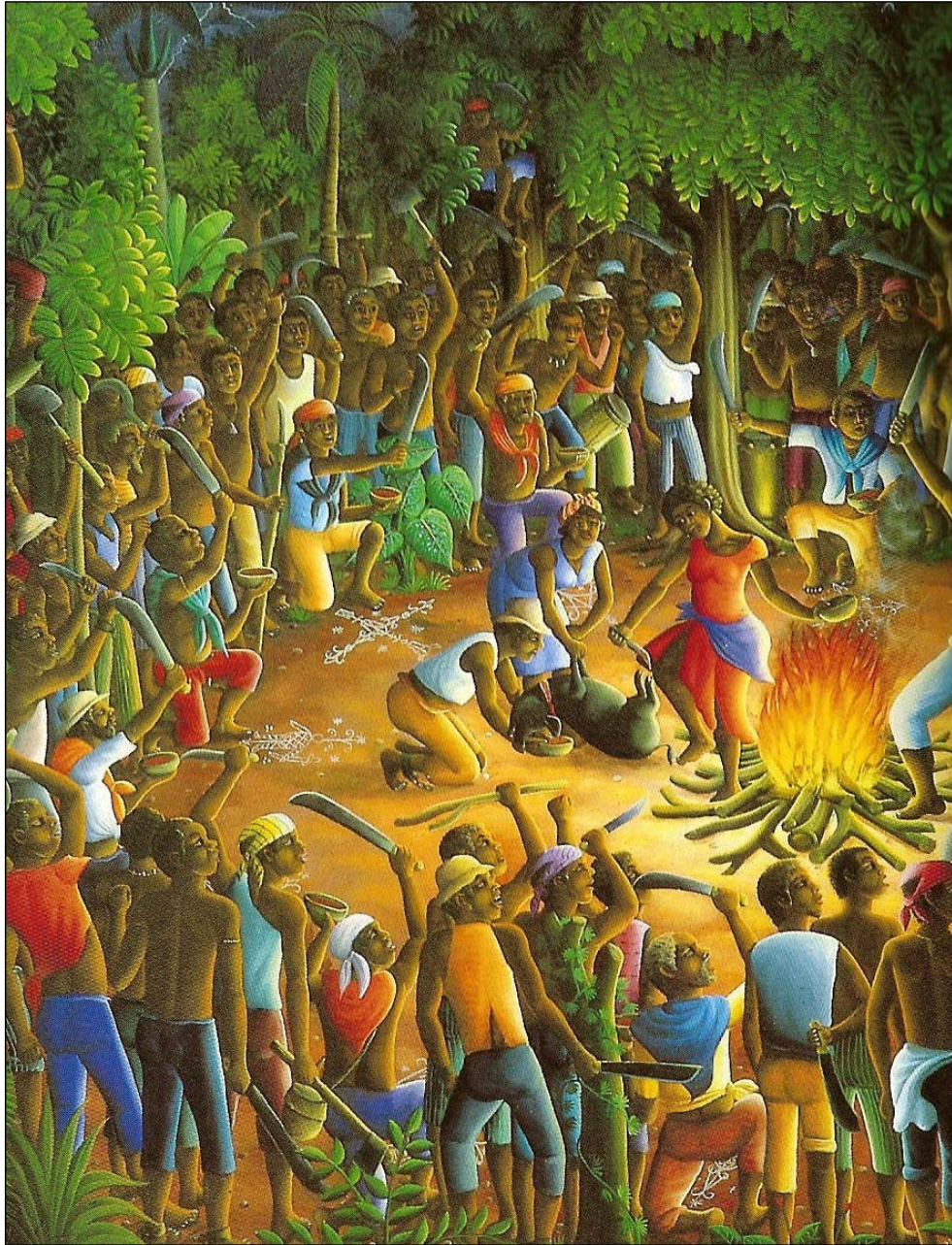
1) 남자 사제는 운강(houngan), 여자 사제는 맘보(mambo)라고 부른다

란에서도 보두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해 8월의 어느 날 밤, 북부의 한 아비타송(플랜테이션보다 규모가 작은 농장)에 위치한 부아 카이망(Bois Caïman)의 산속에서 보두교 사제인 부크망(Dutty Boukman)을 중심으로 노예들의 반란 결사 의식이 치러졌다. 돼지를 죽여서 그 피를 나누어 마시는 의식으로 그들은 서로간의 유대를 확인하였다. 실제로 그런 의식이 치러졌는지, 그리고 부크망이 그 자리에서 했다는 말(“백인들의 신을 물리치자.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고 우리 가슴 속의 자유의 외침에 귀 기울이자.”)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보두 신앙이 강력한 동원력을 발휘하였고 노예들 사이의 결집과 유대를 강화시켜 주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보두교는 노예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감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두 신앙은 노예들에게 언젠가는 고통스런 현실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적인 영성의 세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 그리고 그런 희망과 열망을 상징하는 최초의 신화적 인물이 바로 탈주 노예 마캉달(François Mackandal)이었다. 마캉달은 아프리카 기니아 태생의 노예였는데 사탕수수 압착기에 팔이 끼는 사고로 한쪽 팔을 절단한 불구자였다. 산속으로 달아나서 18년 동안 백인 지주들에 대한 약탈과 살상을 일삼았다. 아이티의 작가 드페스트르(René Depestre)는 마캉달을 기리는 시에서, 단신으로 산악을 달리며 농장의 우물에 독을 풀고 사탕수수밭에 불을 지르는 용맹한 모습으로 그를 묘사하였다. 마캉달의 가장 큰 무기는 산천의 초목을 재료로 만들어낸 독약이었고 보두교 사제로서의 신비한 능력이었다. 결국 탈주 노예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지금의 캡아이시앵(Cap-Haïtien) 광장에서 처형당하였다. 그렇지만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 새가 되어 날아가 영생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마캉달은 자유를 위한 투쟁과 반항의 표상으로 아이티 민중들의 마음속에 강렬

2) 프랑스어로는 ‘마롱’(marron)이라고 불렀는데, 스페인어 ‘시마론’(cimarrón)에서 파생한 단어이다.

한 흔적을 남겼고, 지금도 보두교 부적에 등장하는 수호 정령 가운데 하나이다.



부아 카이망 산속에서 열렸던 보두교 의식의 한 장면

그러나 1791년의 노예 반란에서 시작된 투쟁이 1804년의 독립으로 구체화된 이후에도, 아이티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가톨릭 국가였다. 왜냐하면 노예 반란의 동력은 보두교였지만, 현실의 정치 역학 속에서 새롭게 지도자로 부상한 이들은 모두가 물라토이거나 해방노예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프랑스식 교육을 받고 프랑스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 투생 루베르튀르만 하더라도, 1801년에 노예제를 폐지시킨 장본인이었지만 새로 만든 헌법에서 가톨릭을 유일한 공식 종교로 인정하였다. 보두교가 탈주 노예 공동체들을 중심으로 한 분파주의를 조장해서 중앙 권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반면에 가톨릭은 사회·국가적 동질성의 확보, 풍속의 순화, 민중들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다. 투생이 나폴레옹 군대의 포로가 되어 프랑스의 주(Joux) 감옥에서 숨지자, 투생의 휘하 장군이었던 북부의 장 자크 데살린(Jean Jacques Dessalin, 해방노예 출신으로 프랑스 군대의 장교였다가 반란군에 가담)과 남부의 알렉상드르 페티옹(Alexandre Pétion, 물라토로서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제휴하여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런데 독립과 함께 황제에 오른 데살린은 1805년의 제국 헌법에서 “어떠한 종교의 우월적 지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식민시대 이후 가톨릭교회가 누려왔던 제도상의 여러 가지 권리와 특권을 박탈해버렸다. 그렇지만 데살린을 제거하고 대통령이 된 페티옹은 1807년 헌법에서 가톨릭을 다시 국교로 인정하였다.

가톨릭과 보두교

그런데 국제사회는 흑인노예 반란을 통해 수립된 국가를 쉽게 승인해주지 않았다. 특히 유럽의 열강들은 노예제의 유지에 뜻을 같이 했고, 그들에게 아이티 사례는 중대한 위협이었다. 또한 서구의 시각에서 보면 아

이티는 문화적으로도 보두교 같은 미신이 횡행하는 야만적인 국가였다. 신생국 아이티는 독립하자마자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아이티 입장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주권을 인정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옛 식민 본국인 프랑스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옛 식민지 백인들을 위해 아이티는 프랑스에 1억 5천만 프랑을 지불”하라는 칙령(1825년)을 공포하였다. 그것은 아이티 국가 총수입의 10년 치에 상당하는 엄청난 액수였다. 데살린이 죽은 뒤 북부에 따로 왕국을 건설했던 앙리 크리스토프(Henri Christophe, 그레나다 출신의 해방노예로 호텔 식당의 요리사였다)는 프랑스의 사절을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총살시켜버렸다. 반면에 페티옹의 후임인 부아에(Jean Pierre Boyer) 대통령은 프랑스 함대의 무력시위에 굴복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아이티는 19세기 내내 그 빛을 갠느라 진력이 났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국가 통합을 이루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할 재원을 독립국으로서의 주권을 ‘사는’ 데 써버림으로써, 국가 전체의 안정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³⁾

로마 교황청으로부터도 1860년의 화친조약(콩코르다)을 통하여 국가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 대신에 아이티는 가톨릭을 국교로 인정하고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아이티는 명실상부한 가톨릭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가톨릭 국가이기로 말하자면, 이미 오래 전 식민 시절부터 대부분의 아이티인은 가톨릭 신자였다. 다만 준 국가기구이자 공식적인 종교로서의 가톨릭과 민중의 신앙 행위로서의 가톨릭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685년에 루이 14세의 이름으로 공포된 흑인 노예법 즉 ‘코드 누아르’(Code Noir)는 프랑스 해외 식민지의 흑인 노예에 관한 규정을 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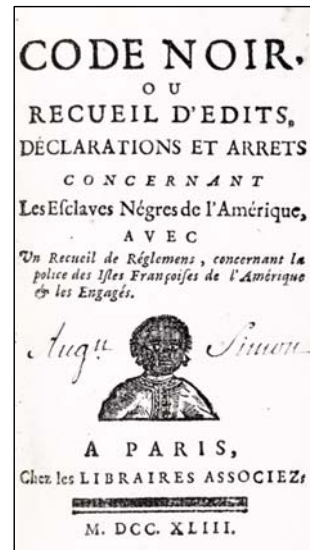
3) 이와 관련하여, 독립 200주년을 앞두고 아리스티드 대통령이 이자까지 계산하여 총 2,100억 달러를 배상환불해 달라고 프랑스에 요구하여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있다. 두 번째 조항에는 노예에 대한 가톨릭 교리 교육과 세례가 흑인 노예를 소유한 모든 이들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식민 본국의 입장에서 그 규정은 아주 중요했다. 노예의 개종이 노예제에 대한 유일한 알리바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민자들은 대개 세례의 의무만을 지켰고, 흑인 노예들도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가톨릭 신앙을 실천하였다. 민중은 가톨릭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석하면서 동시에 보두 신앙도 유지하였다. 민중의 관점에서 보면 가톨릭과 보두교의 경계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다.

보두교 사제조차도 자신의 역할과 가톨릭의 성사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았다.

보두교 속에 아프리카적인 정령 숭배와 가톨릭의 다양한 요소들이 뒤섞여 있는 현상을 학자들은 흔히 ‘의도적인 공생’으로 설명하곤 했다. 흑인 노예들의 입장에서 교회와 권력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해석이다. 그렇지만 민중들이 보두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가톨릭 의례의 효력을 믿었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⁴⁾ 예컨대 노예들은 세례 성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심지어 현지 태생의 흑인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bosal)을 경멸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후자들도 서둘러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은 뒤에는 ‘날림 세례’를 받았다는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다. 또한 보두교 사제들도 영성체가 자신들의 권능을 강화시켜 주리라고 믿었다.

그 외에도 보두교의 가톨릭적인 요소는 아주 많다. 보두교 사당인 운



코드 누아르 표지

4) 그런 사정은 최근의 현상인 신교의 확산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농민들, 하층민들의 경우, 개종은 기독교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보두 정령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방편인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치료가 실패하면 운강 자신이 환자나 그 가족에게 개종을 권유하기도 한다. 또한 유명한 운강의 도움을 받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바람에 재산을 날리고 절망한 사람들도 기독교로 개종한다.

포(hounfo)를 도배하다시피 한 채색 그림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중들은 가톨릭 성인들의 형상을 빌어 모두 정령 로아(loa 또는 lwa)들을 기렸다. 정령들을 모시는 의례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건들도 먼저 가톨릭 식으로 축성을 받았고, 성수도 사용되었다. 전례력도 유사해서, 크리스마스는 보두교에서도 가장 성대한 의식이 치러지는 날이었다. 또한 보두교 신자들은 노한 정령을 달래기 위해 중세 가톨릭의 고행과 유사한 속죄 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것은 가톨릭의 의례를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성당지거나 전도사처럼 피상적인 교리 지식을 갖춘 영터리 사제들이 그들이었다. 가톨릭 영성체나 장례 의식은 운강이나 맘보의 권한 밖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혼종적 양상 때문에 보두교는 가톨릭과 지배 권력의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1835년에 만들어져서 1987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던 형법 조항 하나는 “미신적인 의례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히면 6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조항이 그다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1860년의 화친조약 이후로,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보두교를 미신으로 규정하고 배척했지만 민중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이었다. 간간이 미신타파 운동이 벌어지고 1896년에는 캅아이시옌의 주교를 중심으로 ‘반 보두교 연합’이 결성되기도 했지만 (“보두교는 공공의 적이다. 아이티는 아프리카의 주술사들과 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아메리카의 유일한 나라이고, 아메리카의 수치이다.”) 별 효과는 없었다. 가톨릭교회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1940년 무렵의 일이다. 교회는 레스코 정권의 공식적인 지원 하에 국민들에게 반미신 서약(“집안의 모든 우상들을 처분하겠다... 아이들도 미신을 믿지 않도록 가르겠다...”)을 강요하였고, 보두교 사당인 운포를 헐고 보두 의식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그에 대한 반발로 농민들이 미사에 불참하고 여론도 부정적으로 돌아서자, 정부는 교회에 대한 지지를 철회

하였다. 1950년을 전후해서야 보두교는 다시 햇빛 속으로 나올 수 있었다.

뒤발리에와 아리스티드

보두교는 일반적으로 ‘부두교’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어 왔다. 미국 점령기에 허리우드 영화를 통해 만들어진 ‘부두교’의 이미지는 악마적인 주술과 잔혹하고 음란한 희생제의, 식인(食人) 의식 등을 특징으로 하는 야만적인 원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티를 찾는 미국 관광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도 보두 의식이였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보두교의 사당인 운포는 쇼가 벌어지는 무대로 전락하기도 했다. 19세기말에 유럽인들이 쓴 책들 중에도 보두교의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 것들이 더러 있었다.⁵⁾ 보두 의식과 관련하여 영아 살해나 식인 풍속을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는 믿기 어렵지만, 하층 민중들에게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사악한 주술사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학자들이 ‘부두’ 대신에 ‘보두’(아프리카 다호메 지방의 부족 언어로 ‘정령’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보둔’에서 유래한 이름)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그래서이다. ‘부두’라는 명칭이 실상을 왜곡하는 과장된 이미지를 떠올려주기 때문이다.

어쨌든 보두교가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아이티 민족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1930년대의 일이다. 장 프리스 마르스(Jean Price Mars)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종의 흑인 민족주의, 소위 ‘토착주의’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의사이자 민속학자였던 프랑수아 뒤발리에(François Duvalier, 일명 파파독)도 미신타파 운동에 반대하고 보두교를 민족 문화의 일부로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일련의 글들을 발표하였다. 1956년에 뒤발리에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5) 예컨대, 스펜서 세인트 존의 『아이티, 검은 공화국』(1863).

때, 가톨릭교회가 반공개적으로 그에 대한 불신을 표명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후 30년에 걸친 뒤발리에 부자의 독재 체제 내내 교회와 국가는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요컨대 가톨릭에 대한 뒤발리에의 정책은 현지 출신의 주교단을 구성하여 교회를 국가 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 소위 ‘가톨릭교회의 토착화’로 요약될 수 있다.

‘민족 교회’, ‘토착화’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정치권력에 복종시킨 다음, 뒤발리에에는 국가를 하나의 인종과 그 인종을 대표하는 지도자에게 종속시키는 히틀러식 전체주의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는 ‘아이티는 흑인 국가’라고 선언하였고, 농촌의 보두교 사제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조직하여 권력의 대리인으로 사용하였다. 일종의 친위 민병대 조직인 ‘국가보위대’, 그중에서도 특히 ‘통통 마쿠트’(Tonton Macoute)⁶⁾ 바로 그들이다. 그런 점에서 뒤발리에 체제는 ‘악마론적 상상력의 제도화’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뒤발리에 체제의 흑인주의는 대다수 흑인 민중의 비참한 현실을 몇몇 악마적인 세력들의 탓으로 돌리는 비이성적·비합리적 현실 인식을 일반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아이티의 전 역사를 흑인 종족의 구원의 역사로 신비화하면서 동시에 그 구원을 한 흑인 지도자의 형상 위에 고정시키는 전략—그것이 바로 뒤발리에 체제가 기층의 민중 문화, 특히 보두교를 활용하여 구사한 전략이었다.

1986년에 뒤발리에 일가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1990년에는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Jean Bertrand Aristide)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과정에서 아이티의 사회·정치적 변화를 주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아이티 가톨릭 교회 내의 ‘티 레글리즈’(Ti Legliz, 작은 교회) 운동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교회’ 운동은 60년대 후반부터 라틴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해방신학에 기초하여 몇몇 진보적 사제들이 펼친 일종의 ‘기초공동체’ 운동이었다. 1980년에 빈민교회 운동이 시작되고, 1983년에 교황이 아이티를 방문하여 “이곳에서 무엇인가가 변해

6) 크레올어로 ‘도깨비’나 ‘악귀’를 의미한다.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도 그러한 변화의 또 다른 국면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뒤발리에 체제의 폭력과 에이즈보다 더 위험한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서원을 한 빈민 출신의 흑인 사제 아리스티드가 등장하였다. 아리스티드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권력자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수입원으로 국가를 독점하려 한다는 점에서, 예나 지금이나 아이티는 전제적이고 약탈적인 국가였다.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기층 민중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바로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아리스티드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이다.

아리스티드는 1990년 12월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1991년 9월의 쿠데타로 미국에 망명하였다. 1994년에 클린턴 정부의 도움으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그 후 ‘판미 라발라스’(Fanmi Lavalas) 당을 만들어 2000년 의회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었지만, 부정선거 시비로 정치적 곤경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그해에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사임을 요구하는 반대세력의 요구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대통령령으로

2003년 4월에 보두교를 아이티의 공식 종교로 인정한 것도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조치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기층 민중의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하여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히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두교의 공식 종교 인정은 개신교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개신교는 침례교, 오순절교를 중심으로 나날이 교세를 확장해 가는 중에 있다. 결국 2004년의 정치적 혼란을 구실로 미국이 개입하고 아리스티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외국으로 망명한 뒤,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 포르 토 프랑스의 독립기념박물관에 난입하여 보두교와 관련된 미술품들을 불태우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아리스티드의 ‘포폴리즘’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가톨릭의 헤게모니 상실과 일시적인 국가권력의 약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예컨대 1990년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아리스티드는 자신의 출마를 신과 민중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고 규정하였다. 신과 민중, 그리고 자기 자신 사이에 등가관계를 세우면서, 독재자를 처벌한다는 사명을 중심으로 민중의 정치적 상상력을 종교적으로 재구성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를 해방신학자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신=민중=아리스티드’라는 등식을 민중들의 뇌리에 각인시킴으로써 그는 ‘현실을 신학화’하는 데 성공했던 셈인데, 이는 ‘신학을 정치화’하고자 했던 해방신학의 입장과는 오히려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2004년의 아이티 독립 200주년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좌파 성향의 대표적인 중남미 정치 지도자들인 카스트로, 차베스, 룰라 등이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음미해 볼만한 일이다.

심재중 — 서울대학교 불어권 문화연구소 연구원